

## 학생인권조례 비교

광주 학생인권조례	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	서울교육청 자문위원회안
<b>제1장 총칙</b>	<b>제1장 총칙</b>	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생의 인권에 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관할 학교와 교직원·학생·보호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정하고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헌법」, 「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, 「교육기본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 헌법」, 「교육기본법」 제12조 및 제13조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8조의4, 「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학교”란 광주광역시에 있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.</li> <li>2. “학생”이란 제1호에 따른 “학교”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</li> <li>3. “교직원”이란 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19조에 따른 모든 교원과 직원,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, 「유아교육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.</li> <li>4. “보호자”란 제2호에 따른 “학생”의 부모, 친권자나 후견인, 또는 보호·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.</li> <li>5. “학생의 인권”이란 「헌법」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「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</li> </ol>	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학교”라 함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.</li> <li>2. “학생”이라 함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및 퇴학 여부를 다투는 사람을 말한다.</li> <li>3. “학생의 인권”이라 함은 「헌법」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「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 등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.</li> <li>4. “교직원”이라 함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.</li> <li>5. “유치원”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</li> <li>6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의 자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</li> <li>7. “유아”라 함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</li> </ol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학교”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.</li> <li>2. “유치원”이라 함은 「유아교육법」 제 2조 제 2호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</li> <li>3. “학원”이라 함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의 학원을 말한다.</li> <li>4. “학생”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에 학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. 다만 학적을 갖지 아니하더라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학원에 등록하여 재원 중인 사람은 학생으로 본다.</li> <li>5. “교직원”이라 함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「유아교육법」 제20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.</li> <li>6. “보호자”라 함은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</li> <li>7. “학생의 인권”이라 함은 「대한민국 헌법」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「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</li> </ol>

<p>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.</p>	<p>린이를 말한다.</p>	<p>약」 등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.</p>
<p>제9조(학생인권 보장 원칙)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「헌법」과 「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 의거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. ②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·연구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.</p>	<p><b>제3조(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)</b>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,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.</p>	<p>제3조(학생의 인권보장 원칙) ①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,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. ②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.</p>
<p>제3조(책무) ① 광주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과정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 ②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정책에 협력하고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③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. ④ 보호자는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학생이 올바른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력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4조(책무)</b> ① 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, 교직원,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·보호·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,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,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교육감 등의 책무) ① 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, 학교의 장(유치원장 포함. 이하 같다.), 교직원,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. ③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, 학교의 장은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,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
	<p><b>제5조(교육환경의 개선)</b> ① 교육감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경쟁 교육을 지양하여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</p>	

	<p>야 한다.</p> <p>② 교육감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	
		<p>제5조(학생의 책무)</p> <p>①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,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학교가 정한 생활교육방침과 학교규칙을 포함한 학교의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학생이 교사,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.</p>
	<b>제2장 학생의 인권</b>	
	<b>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</b>	
<p>제20조(차별 받지 않을 권리) ① 학생은 성별, 종교, 민족, 언어, 나이, 성적지향, 신체조건, 경제적 여건,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6조(차별받지 않을 권리)</b> ① 학생은 성별, 종교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지역, 출신국가, 출신민족, 언어, 장애, 용모 등 신체조건, 임신 또는 출산,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, 인종, 경제적 지위, 피부색,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, 성적 지향, 성별 정체성, 병력, 징계,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차별받지 않을 권리) ① 학생은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지역, 출신국가, 출신민족, 언어, 용모 등 신체조건, 임신 또는 출산,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, 인종, 피부색,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, 성적 지향, 경제적 지위, 병력, 징계,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교육감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정책의 수립이나 그 집행, 교육시설의 확보나 교육의 실시 등 모든 학교생활에 있어 장애나 신체조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	<b>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</b>	

<p>제11조(신체의 자유) ①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은 금지된다.</p> <p>③ 학교에서는 교육적 목적의 활동을 제외한 강제노동은 금지된다.</p>	<p><b>제7조(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)</b> ① 학생은 체벌, 따돌림, 집단괴롭힘,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,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③ 교육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, 따돌림, 집단괴롭힘,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) ① 학생은 따돌림, 집단 괴롭힘,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교육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따돌림, 집단 괴롭힘, 성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학교, 유치원 및 학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.</u> 교육감은 학교, 유치원 및 학원에서의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</p>
<p>제19조(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) ① 학생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이 균형 있는 먹을거리를 급식으로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③ 학생은 폭행, 따돌림, 집단 괴롭힘,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·언어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④ 학생은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⑤ 교육감과 학교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⑥ 학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상시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⑦ 교육감과 학교는 학생의 신체적, 정신적 건강과 안전 및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치유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지역 주민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8조(위험으로부터의 안전)</b>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,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안전관리체제의 정비 등) ① 교육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,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하여야 한다.</p>

	<b>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</b>	
<p>제10조(학습할 권리)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</p> <p>②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보충수업, 자율학습 등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③ 학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학교는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임의적인 교내·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⑤ 교육감은 임의적인 교내·외 행사 참석을 학교에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9조(학습에 관한 권리)</b></p> <p>① 학생은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</p> <p>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교내·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교육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(일시적 장애를 포함함, 이하 같음), 다문화가정 학생, 외국인 학생, 예체능 학생,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.</p> <p>⑤ <u>취학연령의 이주아동(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)은 교육기본법 제8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</u></p>	<p>제10조(학습에 관한 권리)</p> <p>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교육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, 상담, 돌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교육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(일시적 장애를 포함함, 이하 같음), 다문화가정 학생, 외국인 학생, 예체능학생,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.</p> <p>⑤ <u>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.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⑥ <u>학교의 장, 교직원, 학생의 보호자는 과도한 선행 학습을 실시 또는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10조(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)</b></p> <p>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,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,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,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.</p>	<p>제11조(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습을 선택할 권리) ① 학생은 자율학습, 방과 후 학교 등 정규의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<u>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·외 행사참석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,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, 정규의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</p>

	다.	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의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·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18조(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) ①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.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공간 및 행·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③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하여 교육, 공연, 전시, 축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 ⑤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.	<b>제11조(휴식을 취할 권리)</b>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·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.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.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.	제13조(휴식권)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·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.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.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의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의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.
	<b>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</b>	
	<b>제12조(개성을 실현할 권리)</b> ① 학생은 두발,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.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.	제14조(개성을 실현할 권리) ① 학생은 복장,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.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, 두발 등 용모에 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교복착용 여부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이 그 제·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제12조(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)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,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	<b>제13조(사생활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)</b> ①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 및 가족, 교우관계, 성적, 병력, 징계기록, 교육비 미납사실, 성적지향·성정체성 등	제15조(사생활의 자유)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, 사적 공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그를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

<p>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③ 학생은 부당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,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④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⑤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.</p> <p>⑥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5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정한 학교의 규정으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.</p> <p>⑦ 학교는 학생의 정보를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 수집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⑧ 학교의 장은 학교 재산 보호 및 학생·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을 설치하여야 한다.</p>	<p>의 개인 정보(이하 “개인 정보”라 한다)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하는 행위,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.</li> <li>2.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을 일괄 검사하는 행위</li> <li>3.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는 행위</li> <li>4. 학생의 휴대전화기 및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. 단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수업시간에 한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</li> <li>5. 학교 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</li> <li>6. 보호자의 학력, 재산, 종교, 가족관계를 비롯한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행위</li> <li>7. 학생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</li> <li>8. 학생의 교우관계에 간섭하는 행위</li> </ol> <p>③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·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.</p> <p>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을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, 설치 후에는 설치 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⑥ 교육감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 정보를 수집·처리·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.</p>	<p>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교직원이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,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 <u>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이 그 제·개정</u>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.</p> <p>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등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, 그 설치장소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.</p>
--	---	---

	<p>⑦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
		<p>제16조(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) ① 학생은 가족, 교우관계, 성적, 병력, 징계기록, 교육비 미납사실, 상담기록 등 자기의 개인정보(이하 “개인정보”라 한다)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③ 교육감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·처리·관리할 때에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
	<p><b>제14조(정보의 권리)</b> ① 학생은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생은 학교의 장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공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7조(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)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열람하고 그 정정이나 삭제,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부정확한 경우</li> <li>2.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</li> </ol>



	<p>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,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,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정정이나 삭제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⑤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련된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</p>	<p>3.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</p> <p>4.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</p> <p>5. 기타 그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</p> <p>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학교의 장은 예·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</p>
	<p><b>제5절 양심·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</b></p>	
<p>제13조(사상과 양심, 종교의 자유) ①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</p>	<p><b>제15조(양심·종교의 자유)</b> ① 학생은 세계관, 인생관 또는 가치적·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,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③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석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</li> <li>2.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</li> <li>3.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.</li> <li>4.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</li> </ol>	<p>제18조(양심·종교의 자유)</p> <p>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,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③ 학교의 장이 특정 종교에 관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종교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과목(이하 이 조에서 「대체과목」이라 한다)을 마련하여 학생의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에게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</li> <li>2.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</li> <li>3.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을 부과하거나 시험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대체과목을</li> </ol>

	<p>5.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         6.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         7.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         8.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,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</p> <p>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전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·감독할 의무가 있다.         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.</p>	<p>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</p> <p>4.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는 행위          5.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등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</p> <p>⑤ 교육감은 입학이나 전학과 관련한 학교의 배정에 있어 학생에게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학교를 기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        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종교와 관련한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
<p>제14조(표현의 자유)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.          ② 학생은 두발,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교복은 제15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          ③ 학생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.          ④ 학교는 인터넷 및 인쇄 매체를 통한 학생들의 언론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, 필요한 시설 및 행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16조(의사 표현의 자유)</b>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.        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.          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        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        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        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제작,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등 학생의 언론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, 이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·재정적</p>	<p>제19조(의사 표현의 자유)</p> <p>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        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       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,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, 필요한 시설 및 행·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         ④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. <u>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교육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, 장소,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.</u></p>

	지원을 하여야 한다.	
	<b>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</b>	
<p>제15조(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) ①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생은 직접,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 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·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,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보장하고, 필요한 시설 및 행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⑤ 학교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</p> <p>⑥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 때에 제29조에 따른 학생의회를 통하여 학생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</p>	<p>제17조(자치활동의 권리) ① 동아리, 학생회 기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, 소집, 운영, 활동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.</p> <p>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,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,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, 평등, 직접,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.</p> <p>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,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</li> <li>2. 학교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</li> <li>3.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</li> <li>5.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임할 권리</li> <li>2.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</li> <li>3. 납부금 징수, 성금 모금, 학교생활,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</li> <li>4.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의·의결할 수 있는 권리</li> <li>5.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의결 사항을 학교당국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</li> </ol> </li> </ol>	<p>제20조(자치활동의 권리) ① 학생은 동아리, 제37조에서 정한 학생회 및 기타 학생자치조직(이하 「학생자치조직」이라 한다)을 구성, 운영하며 자유롭게 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,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</li> <li>2. 학교운영, 학교생활, 학생복지 등 학생자치조직의 설립목적 및 활동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</li> <li>3.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</li> <li>4. 다른 학교의 학생자치조직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</li> <li>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행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</li> <li>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,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, 평등, 직접, 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.</li> <li>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·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,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, 소명기회의 보장,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.</li> </ol> <p><b>제37조(학교 학생회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학생 자치 및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각 학교(유치원은 제외한다)에 학생대표기구로 학생회를 둔다.</li> <li>②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li> </ol>

	<p>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</p> <p>6. 타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</p> <p>7.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인권 증진 및 학교인권 개선을 위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</li> <li>2. 학생인권에 영향을 주는 학교규칙에 대한 의견 제시</li> <li>3. 학교의 생활교육 방안 및 학생규율 제정에 대한 참여</li> <li>4. 학교규칙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규율 위반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조치</li> <li>5. 학생의회 의원의 선출</li> <li>6. 기타 학생자치활동에 속하는 제반 사항</li> </ol> <p>③ 학생회는 제20조제2항의 권리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임할 권한</li> <li>2. 학생총회·대의원대회 등을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한</li> <li>3. 학생회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·의결할 수 있는 권한</li> <li>4.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당국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한</li> </ol> <p>④ 학교의 장은 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 교사의 지정, 예산과 공간의 배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⑤ 학생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정한 자치규정으로 정한다.</p>
	<p><b>제18조(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·개정에 참여할 권리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·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·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</li> <li>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·보호·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·개정하여야 한다.</li> <li>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·개정 과정에</li> </ol>	<p>제21조 (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·개정에 참여할 권리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·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</li> <li>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·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. 다만 학생의 경우 30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 학생회를 경유하여 발의한다.</li> <li>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발의가 있거나 학교 규정의 제·개정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, 학부모,</li> </ol>

	<p>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,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.</p> <p>④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의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.</p>	<p>교원의 동수로 구성된 학교규정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학교규정 제정·개정안을 검토·확정한다.</p> <p>④ 학교규정제개정위원회는 학교규정 제정·개정안을 검토·확정함에 있어 설문조사, 토론회,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. <u>다만 제14조, 제15조 및 제19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거나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·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·개정해야 한다.</p>
	<p><b>제19조(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)</b>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</p> <p>④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</p>	<p>제22조(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)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</p> <p>⑤ 교육감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</p>
	<p><b>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</b></p>	
<p>제17조(교육복지에 관한 권리) ① 학생은</p>	<p><b>제20조(학교복지에 관한 권리)</b> ① 학생은 학습부진, 폭</p>	<p>제23조(학교복지에 관한 권리) ① 학생은 학습부진,</p>

<p>학습부진, 폭력, 학교부적응, 빈곤,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교육감과 학교는 빈곤, 장애, 다문화 등 가정적·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교육감과 학교는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3항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보호자는 제안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</p>	<p>력피해, 가정위기,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,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교육감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, 장애 학생, 다문화가정 학생, 외국인 학생, 성소수자 학생, 근로학생 등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교육감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교육감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,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여야 한다.</p>	<p>폭력피해, 가정위기,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, 진로모색 등 자기정체성과 역량의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을 받는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교육감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, 장애 학생, 다문화가정 학생, 한부모가정 학생,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학생 등 경제·사회·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교육감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교육감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,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여야 한다.</p>
	<p><b>제21조(교육환경에 대한 권리)</b>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교육감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, 청결한 환경의 유지,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, 적절한 냉난방 관리,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24조(교육환경에 대한 권리)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교육감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 및 교 직원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, 청결한 환경의 유지,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 공간의 확보, 적절한 냉·난방 관리, 녹지공간의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
	<p><b>제22조(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)</b>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, 공연,</p>	<p>제12조(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)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, 교육, 공연, 전시 등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</p>

	<p>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하고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p>	<p>여야 한다.</p> <p>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.</p>
	<p><b>제23조(급식에 대한 권리)</b>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로 안전하게 만든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,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 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교육감, 학교의 장은 친환경,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⑤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25조(급식에 대한 권리)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,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교육감, 학교의 장은 친환경,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
	<p><b>제24조(건강에 관한 권리)</b>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,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,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.</p> <p>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생리로 인한 고통을 겪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교육감,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교육감,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26조(건강에 관한 권리)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,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,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	<b>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</b>	
제16조(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) ①	<b>제25조(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)</b> ① 학생은 징계사유	제27조(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) ① 학생의 징계는

<p>학생은 징계사유의 사전 통지,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, 소명 기회 보장, 대리인 선임권 보장, 재심요청권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진행되어야 하며, 학교는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지역사회,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</p>	<p>에 대한 사전 통지,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, 소명의 기회 보장, 대리인 선임권 보장,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,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p>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,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, 소명기회의 보장, 대리인 선임권 보장,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.</p> <p>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,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,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<u>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p>
	<p><b>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</b></p>	
	<p><b>제26조(권리를 지킬 권리)</b>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</p>	<p>제28조(권리를 지킬 권리)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</p>
	<p><b>제27조(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)</b>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,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</p> <p>④ 학생인권옹호관,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청구 또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, 그 처리 결과를 청</p>	<p>제29조(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)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학교의 장, 교육청, 교육지원청, 기타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,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</p> <p>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, 교육감 및 학교의 장 등은 제2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,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</p>



	구 또는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통보하여야 한다.
	<b>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</b>	
<p>제21조(소수자 학생의 권리) ① 교육감과 학교는 빈곤, 장애,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교육감과 학교는 소수자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인권 교육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교육감과 학교는 소수자 학생이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28조(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)</b> ① 교육감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, 장애 학생, 한부모가정 학생, 다문화가정 학생, 외국인 학생, 운동선수, 성소수자,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(이하 “소수자 학생”이라 한다)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교육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,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해야 한다.</p> <p>④ 교육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, 학생의 안전상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한다.</p> <p>⑤ 교육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,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한다.</p> <p>⑥ 교육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⑦ 교육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,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·문화적 차이</p>	<p>제30조(차별시정 및 적극적 조치) ① 교육감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, 장애 학생, 다문화가정 학생, 한부모가정 학생, 이주민 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, 성소수자 학생, 운동선수,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필요한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교육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,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장애학생은 학교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, 장애상태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교육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학생이 가정형편 등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⑤ 다문화가정 학생,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. 교육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, 이주민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·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·입학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⑥ 교육감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,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</p>

	<p>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또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실만으로 학교에 전·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.</p> <p>⑧ 다문화가정 학생,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.</p> <p>⑨ 다문화가정 학생, 외국인 학생은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.</p>	<p>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
	<p><b>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</b></p>	
	<p><b>제29조(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)</b>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, 교직원, 보호자 및 서울특별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.</p>	<p>제52조(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)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, 학생, 교직원 및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</p>
<p>제8조(홍보)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를 학교 급에 맞게 제작·배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30조(홍보)</b> ① 교육감은 「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·고등학생용, 초등학생용,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·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.</p>	<p>제51조(학생인권교육과 홍보) ① 교육감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이 학생인권에 대한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<u>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 및 그 홍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.</u>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.</p> <p>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④ <u>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생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

		제53조(홍보) 교육감은 「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·고등학생용, 초등학생용,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·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<p>제34조(인권교육 지원) 교육감은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·홍보 등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</p> <p>제35조(학교 내 인권교육 및 연수) ① 학교는 학기당 2시간 이상 인권에 관한 학생교육 및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31조(학교 내 인권교육·연수)</b>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,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.</p> <p>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</p>	<p>제54조(학생에 대한 인권교육)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,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.</p> <p>④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</p>
<p>제36조(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)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연수에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32조(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)</b> ① 교육감은 교직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를 위하여 교육·연수자료 및 교육·연수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</p>	<p>제55조(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)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연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 연수에 학생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
<p>제37조(보호자 교육)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</p>	<p><b>제33조(보호자 교육)</b> ①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</p>	<p>제56조(보호자 교육)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</p>

<p>회를 연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.</p>	<p>다.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</p>	<p>이상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제57조 (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등) ① 교육감은 이 장에서 정한 인권교육과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보장과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의 형성을 위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p>
<p>제5조(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인권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.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인권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공청회 등) 교육감은 인권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, 토론회,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, 교직원, 보호자,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34조(인권실태조사)</b> ① 교육감은 매년 서울특별시내 학생인권 실태 및 이 조례의 이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,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42조(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)</b>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(이하 “학생인권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.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3.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.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·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5.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6. 교육과학기술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7.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.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</p>
<p>제4조(학생인권증진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생인권증진계획(이하 “인권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② 인권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 방향 2.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 계획 3.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. 교직원, 학생, 보호자의 인권 의식 함양</p>	<p><b>제35조(실천계획의 작성)</b>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·복지·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공청회, 토론회,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, 교직원, 보호자, 서울특별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43조(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)</b>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.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</p>

<p>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방안</p> <p>5.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인권 침해 요소의 현황 및 개선 방안</p> <p>6. 학교 평가에서 학생인권 보장 실태를 반영하는 방안</p> <p>7. 그 밖에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</p> <p>제6조(공청회 등) 교육감은 인권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, 토론회,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, 교직원, 보호자,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</p>		<p>하고, 그 결과를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학생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44조(공청회 등)</b> 교육감은 교육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, 토론회,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, 교직원, 보호자,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45조(학생인권영향평가)</b></p> <p>①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,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교육감은 교육감의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때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권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.</p> <p>④ 교육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
<p>제23조(학생인권위원회)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학생인권증진계획의 심의</p>	<p><b>제36조(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)</b>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학생인권옹호관 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p>	<p><b>제31조(학생인권위원회)</b></p> <p>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, 학생인권 관련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인권위원회(이하 “학생인권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학생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

<p>2. 학생인권증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의견권고</p> <p>3. 제27조에 따른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요구</p> <p>4. 학생인권의 침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및 개선 권고</p> <p>5. 그 밖에 학생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 <p>제2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1. 교원 대표</p> <p>2. 교육, 아동복지, 청소년 전문가</p> <p>3.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</p> <p>4.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</p> <p>5.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</p> <p>6. 학생의회 의장단협의회의 대표</p> <p>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.</p> <p>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 위원의 결원이 생겨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제25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회무를</p>	<p>③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.</p> <p>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.</p> <p>1. 교육, 아동복지, 청소년, 의료, 법률,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</p> <p>2.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</p> <p>3. 서울특별시민 중에서 학생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</p> <p>⑤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</p> <p>⑥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</p> <p>1.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</p> <p>2.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</p> <p>3.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</p> <p>⑦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생인권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항 각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</p>	<p>1. 교육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</p> <p>2. 교육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</p> <p>3.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와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</p> <p>4.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교육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</p> <p>5. 교육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, 정책, 교육 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</p> <p>6. 교육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</p> <p>7. 교육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·조사 보고서의 발간</p> <p>8.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심의</p> <p>9. 교육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</p> <p>10. 그 밖에 교육감,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</p> <p>③ 학생인권위원회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<b>제32조(학생인권위원회의 구성)</b></p> <p>① 학생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</p> <p>1. 교육, 아동복지, 청소년, 의료, 법률,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5인 이상</p>
--	---	--

<p>총괄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정기회 : 연4회 이상</li> <li>2. 임시회 :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</li> <li>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.</li> <li>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li> <li>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청 학생인권 업무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.</li> </ol> <p>제26조(위원의 해촉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</li> <li>2. 위원이 인권에 반하는 활동으로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이 되었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</li> </ol> <p>제27조(학생인권영향평가) ①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,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서(이하 “평가서”라 한다)를 작성·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인권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및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.</p>	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. 학생의회에서 학생인권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2인 이상</li> <li>3.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</li> <li>4.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인 이상</li> <li>5.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인 이상</li> <li>6.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인 이상</li> <li>7.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이상</li> </ol> <p>② 학생인권위원회의 위원은 특정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④ 위원의 결원이 생겨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<b>제33조(학생인권위원회의 운영)</b></p> <p>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,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.</p> <p>② 학생인권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정기회 : 연 4 회 이상</li> <li>2. 임시회 :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</li> <li>③ 학생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.</li> <li>④ 학생인권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.</li> <li>⑤ 학생인권위원회의 간사는 제31조제2항 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인이 담당한다.</li> <li>⑥ 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</li> </ol>
---	--	--

<p>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제28조(운영세칙 등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		<p>하여 발언할 수 있다.</p> <p>⑦ 학생인권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<b>제34조(규칙의 제정)</b></p> <p>①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학생인권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교육규칙을 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</p>
<p>제29조(학생의회)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구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학생의회(이하 “학생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」 개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학생인권증진계획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생 관련 정책 중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</li> <li>4. 그 밖에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</li> </ol> <p>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고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30조(학생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학생의회는 유치원을 제외한 각 학교 급에</p>	<p><b>제37조(학생참여위원회)</b>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. 다만,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④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</li> </ol>	<p><b>제35조(학생자치의회)</b></p> <p>① 교육감은 교육청 및 학교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학생의 참여와 의견을 구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으로서 자치의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학생자치의회(이하 “학생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p> <p>② 학생의회는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의 제시</li> <li>2.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대한 의견의 제시</li> <li>3.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</li> <li>4.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</li> <li>5.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</li> <li>6. 서울특별시 교육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</li> <li>7. 학생인권옹호관의 인권구제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</li> <li>8. 기타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</li> </ol>



<p>따라 구성하며 고등학교 학생의회는 본청, 초등학교·중학교 학생의회는 교육지원청별로 둔다.</p> <p>② 당연직 학생의회의원(이하 “학생의원”이라 한다)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각 급 학교 학생회장으로 하며, 당연직 학생의원 수의 20퍼센트 이내의 인원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학생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.</p> <p>③ 학생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학생의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 학생의회는 그 주체인 학생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⑤ 그 밖에 학생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31조(학생의원의 임무) ① 학생의원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학생의원은 학생의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학생들의 인권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32조(학생의원의 임기 및 자격 상실) 학생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회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</li> <li>2. 학생의원이 학생인권에 반하는 활동으로 학생의회의 품위에 손상이 되었다고 학생의회가 의결한 경우</li> </ol> <p>제33조(학생의회의 지원) ① 교육감 및 교육장, 학교는 학생의회에 학생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</p>	<p>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	<p>③ 교육감은 학생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, 학생의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학생의회의 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<b>제36조(학생의회의 구성과 운영)</b></p> <p>① 학생의회의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소속 학교(유치원은 제외한다)의 학생회에서 각 1명씩 선출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.</p> <p>② 학생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학생의회 의원들 중에서 호선하며, 필요한 경우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약간 명으로 구성된 의장단을 둘 수 있다.</p> <p>③ 학생의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3인 이상 약간 명(이때 부의장은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)을 두며,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학생의회가 선출한다.</p> <p>④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정기회 : 연 1 회</li> <li>2. 임시회 :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00명 이상의 재적의원의 찬성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</li> </ol> <p>⑤ 학생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⑥ 학생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</p>
---	--	--

<p>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생의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을 설치하고 필요한 기자재를 배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38조에 따른 센터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부서는 학생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생의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.</p>		
	<p><b>제38조(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)</b>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조사하고,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, 학교의 장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지도·감독을 해야 한다.</p>	
<p>제7조(인권활동 지원) ① 교육감은 인권계획 추진을 위하여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교육감은 인권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39조(시민활동 지원)</b>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,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	
	<p><b>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</b></p>	
	<p><b>제40조(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)</b> ①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.</p>	<p>제38조(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) ①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정한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</p>

	<p>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. 다만, 처음 선출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.</p> <p>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,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.</p> <p>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.</p> <p>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「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</p>	<p>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. 학생인권옹호관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.</p> <p>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.</p> <p>③ <u>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그 보수 및 처우는 &lt;별표&gt;와 같이 한다.</u></p> <p>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,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.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학생인권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혹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.</li> <li>2.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</li> </ol> <p>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「헌법」과 관련 법령, 그리고 「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</p>
	<p><b>제41조(겸직금지)</b>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, 지방의회 의원, 공무원,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.</p> <p>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.</p>	<p>제40조(겸직의 제한 등)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, 지방의회 의원, 공무원,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.</p> <p>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.</p> <p>③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,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써 정한다.</p>
	<p><b>제42조(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)</b>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</p>	

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</li> <li>2.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</li> <li>3.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</li> <li>4.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</li> <li>5.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</li> <li>6.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</li> </ol>	<p>제39조(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)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, 지침 등의 연구·개발</li> <li>2.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</li> <li>3.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접수 및 조사</li> <li>4.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</li> <li>5.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</li> <li>6.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</li> <li>7.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</li> <li>8.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의회의 업무 지원</li> <li>9.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</li> <li>10.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</li> </ol>
	<p><b>제43조(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)</b>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,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.</p>	
<p>제38조(민주인권교육센터)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인권교육, 민주시민교육 및 평화교육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주인권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민주·인권·평화교육의 시행 및 지원</li> <li>2. 민주·인권·평화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</li> <li>3. 학생인권 침해 관련 상담 및 조사</li> </ol>	<p><b>제44조(사무국)</b>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.</li> <li>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.</li> <li>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li> </ol>	<p><b>제41조(학생인권교육센터)</b></p> <p>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<u>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·제도·정책·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, 유형 및 판단기준,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·자료의</li> </ol>

4. 학생의회 지원  
 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③ 센터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며, 제2항 제3호와 관련해서는 전문조사원과 상담원 등을 둔다.  
 ④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39조(전문위원회) ① 센터는 제38조제2항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문 역할로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 
 ② 전문위원회는 3명 이내로 구성하며, 학생인권위원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 
 ③ 외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.

1.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
2. 교육 및 법률 전문가

제40조(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) ① 센터는 학생이 인권 침해에 대하여 상담하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연락·통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  
 ②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센터에 그에 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.  
 ③ 제2항의 구제 신청을 받은 센터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, 침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조사한 후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 
 ④ 교육감은 제3항의 보고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, 학교 및 교직원에게

조사·수집·정리·분석 및 보존  
 4.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
 5.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 
 6.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계약직공무원을 두며 그 정원 및 그 처우 등은 <별표>와 같이 한다.  
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.  
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 
 ⑥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<별표> 학생인권옹호관등의 정원, 급여 및 처우기준

구분	정원	급여 및 처우기준
학생인권옹호관	1인	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준함
학생인권교육센터 팀장	3인	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준함
학생인권교육센터 팀원	12인	7급 내지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준함

<p>대하여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,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.</p> <p>⑤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교육청, 학교 및 교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소명하여야 한다.</p> <p>제41조(학생인권 침해의 조사) ① 센터는 제38조제2항 제3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, 교직원 및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40조제2항의 구제 신청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.</p> <p>③ 교직원 및 관계 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 요구 및 질의,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.</p>		
	<p><b>제45조(지역교육청별 상담실)</b>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.</p> <p>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,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</p>	
<p>제22조(청원할 권리) ① 학생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지며,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.</p> <p>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구 및 청원을 제4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46조(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)</b>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, 지역교육청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, 교직원,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	<p>제46조(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)</p> <p>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, 각 지역교육지원청 별로 학생인권 상담실을 둔다.</p> <p>③ 제2항의 상담실은 학생인권 관련 상담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, 그 결과를 정기</p>

	<p>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,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감, 지역교육청장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, 교직원, 학생 및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,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.</p>	<p>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</li> <li>2.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,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</li> <li>3. 그밖에 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</li> </ol>
	<p><b>제47조(조사)</b>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2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,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,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.</p> <p>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6조 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.</p> <p>③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,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47조 (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)</b></p> <p>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5조제1항의 구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의 동의(이하 「피해당사자」라 함)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. 다만,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직권으로 혹은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조사할 수 있다.</p> <p>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이 조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,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, 학교의 장, 교직원, 학생의 보호자,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(이하 이 장에서 「관계인」이라 한다)에게 질의할 수 있다.</p> <p>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.</p> <p>③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현장방문</p>

		<p>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질의를 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48조 (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)</b></p> <p>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46조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가해자나 그 소속 학교의 장 등 관계인,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</li> <li>2. 원상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</li> <li>3.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, 인권 교육, 징계 등 적절한 조치</li> <li>4.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</li> </ol> <p>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의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 <p>④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,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그 소속 학교의 장 등 관계인,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그 소속 학교의 장 등 관계인, 또는 교육감이 권고 내</p>
--	--	---



		<p>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가해자나 그 소속 학교의 장 등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.</p> <p>⑧ 학생인권옹호관은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 등 관계인 또는 교직원, 교육감 등의 조치결과 혹은 통보내용,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다.</p> <p><b>제49조(보고의무)</b> 학생인권옹호관은 이 장에 의한 사건 처리 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50조(비밀유지의무)</b> ①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지원센터의 구성원은 이 장의 구제신청 및 조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학생인권위원회의 위원은 제48조제3항에 의하여 학생인권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지득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	<b>제5장 보칙</b>	
<p>제42조(규정제·개정심의위원회) ① 학교는 이 조례에 합치하도록 학교 규정을 제·개정하기 위한 규정제·개정심의위원회(이하 “규정개정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</p> <p>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·보호자·학생 대표로 구성한다.</p> <p>③ 교육감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</p>	<p><b>제48조(규정개정심의위원회)</b>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·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(이하 “규정개정심의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두어야 한다.</p> <p>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, 보호자,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, 학생대표로 구성한다.</p> <p>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</p>	<p>제2조(규정개정 심의위원회) ①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·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규정개정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, 보호자,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, 학생대표로 구성한다.</p> <p>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</p>

<p>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.</p>	<p>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.</p> <p>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·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, 절차,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.</p>	<p>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.</p> <p>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·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, 절차,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.</p>
	<p><b>제49조(규칙)</b>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5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.</p>
	<p><b>제50조(준용규정)</b> 제2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은 유아, 유치원을 설립·경영하는 자, 유치원의 교직원 및 보호자 간에 이를 준용한다.</p>	
	<p><b>부칙</b></p> <p><b>제1조[시행일]</b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<b>제2조[경과조치]</b>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,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은 제48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</p>	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규정개정 심의위원회) ①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·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“규정개정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, 보호자,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, 학생대표로 구성한다.</p> <p>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.</p>